



주님 부활 대축일(4월 9일)

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.(요한 20,9)



승리하신 그리스도

“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.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.”(요한 4,14)

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습니다. 부활 아침 성무일도는 그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. “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키었건만 장엄한 광채 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.”

그림 김옥순 수녀 | 성바오로딸수도회 (출처: 서울주보, 2014. 4. 20.)

시작성가

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129번 “알렐루야 노래하자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

주님 초대하기

| 진행자 | :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.
(초대기도가 힘들 때,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.)
- 주님!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.
- 주님,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.

하느님 말씀

| 진행자 | :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.

†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,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,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.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. “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.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.”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.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,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.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,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.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. 7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,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.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. 그리고 보고 믿었다.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| 진행자 | :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.



| 진행자 | :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.

† “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.” (요한 20,1)

나에게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?

† “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.” (요한 20,9)

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. 조금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?

| 진행자 | :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.

한걸음 더 나아가기

| 진행자 | :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.
(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)

† 경제가 어렵습니다. 이런저런 이유로 사는 게 힘들다고들 합니다. 이런 현실에서 주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. 직장을 떠나야 하고,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과 함께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. 그래서 ‘혼자만’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드릴 일이 분명 있습니다.

복음에서 막달레나는 이른 새벽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스승님에 대한 애정이 무작정 그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. 그러기에 빈 무덤을 목격했고 부활을 증언하는 첫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아무런 계산 없이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막달레나의 용기가 복음의 주제입니다. 기쁨은 언제나 잠시입니다. 돌아서면 같은 날이 늘 계속됩니다. 그러나 이런 날의 연속이 삶의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. 그리하여 언젠가 화사한 꽃밭으로 바뀌게 합니다. 그날이 부활입니다.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.

생명의 말씀 정하기

| 진행자 | :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.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?

말씀 살기

| 진행자 | :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.

(나눔 후)

| 진행자 | :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‘생명의 말씀’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.

마침기도

| 진행자 | :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.

마침성가

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129번 “알렐루야 노래하자”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